2026년 3월 27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Macro Alert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Econom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재집권 후 최저치. 미국 경제 충격은 우려보다 적을 것

이란 전쟁 여파로 트럼프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 분야는 1) 인플레이션, 2) 경제/고용인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폭등하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휘발유 리테일 가격은 2월 말 대비 37% 상승하며 갤런 당 $4에 이르렀다. 이란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이다. 직접적으로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아시아, 역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달리 미국은 석유 순수출국이며, 개인소비지출 중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가 충격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틀란타 연은 GDP Now는 미국 1분기 GDP를 전분기연율 2.0%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 가구의 비자발적 지출 늘어나며 K자형 경제 구도는 심화

실제로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시장 예상과 달리 급증하며 충분한 상황이며, 예년 대비 휘발유 재고 수준도 높다. 시의적절하게 베네수엘라산 중질유가 미국으로 향하면서 미국 내 에너지 공급 차질은 제한될 것이다. 다만 유가는 미국의 수급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에너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미국 에너지 빈곤 가구(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이 중간값의 2배 초과)의 81%는 소득 하위 40%에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 빈곤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25%를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다. K자형 경제 구도가 심화될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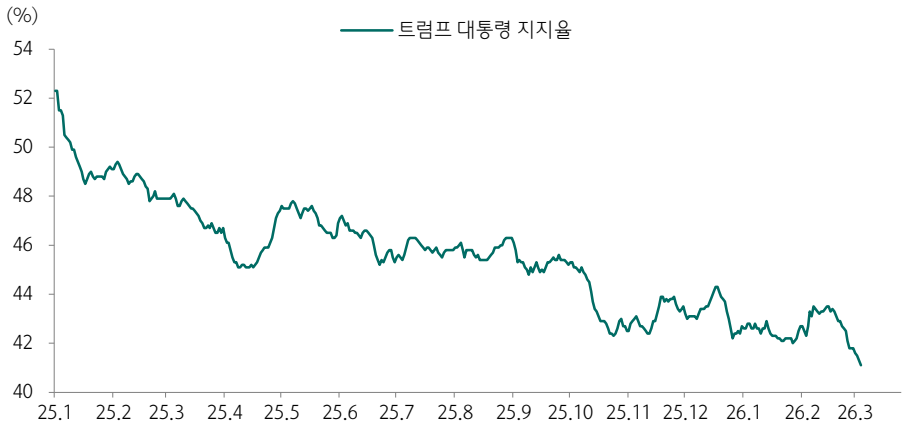
전쟁 이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행태 변화. 투자 지출 늘어날 듯

한편 전쟁으로 인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에너지 기업들의 심리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 댈러스연은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실시한(3/11~3/19) 에너지 기업 서베이를 보면, 에너지 기업 활동 지수는 25년 4분기 -6.2P에서 26년 1분기 21.0P로 반등했다. 3월부터 원유 시추 공수 가동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국 셰일기업들의 기존 유정 BEP는 평균 $43 수준으로 전쟁 이전에도 생산을 이어갈 유인이 있었으나, 신규 유정의 BEP는 평균 $66으로 기존의 유가 레벨에서 신규 투자를 진행할 유인이 없었다. 금번 서베이에서 셰일기업들은 6개월 후 WTI가 $7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업 중 47%가 올해 시추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란 전쟁이 공급 과잉에 허덕이던 원유 시장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한 만큼, 단기적으로 미국 셰일업계의 투자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둔화를 투자가 일부 상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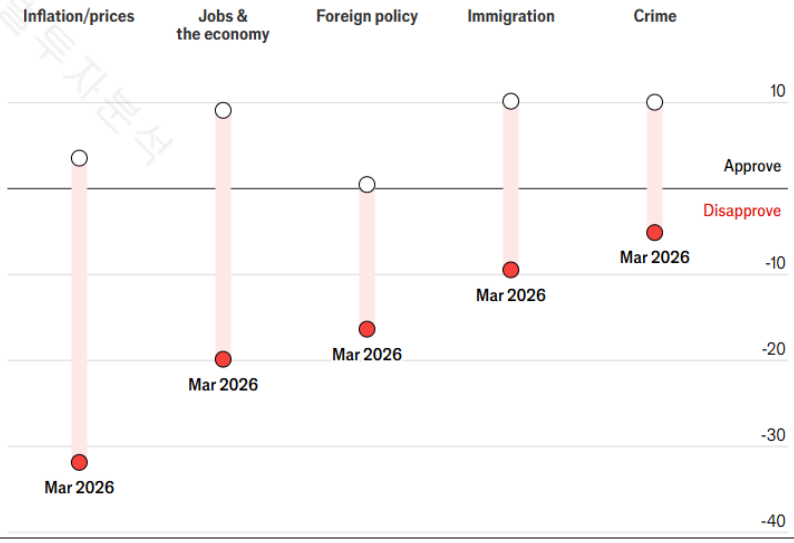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 이란 전쟁 이후 트럼프 지지율 하락하며 재집권 후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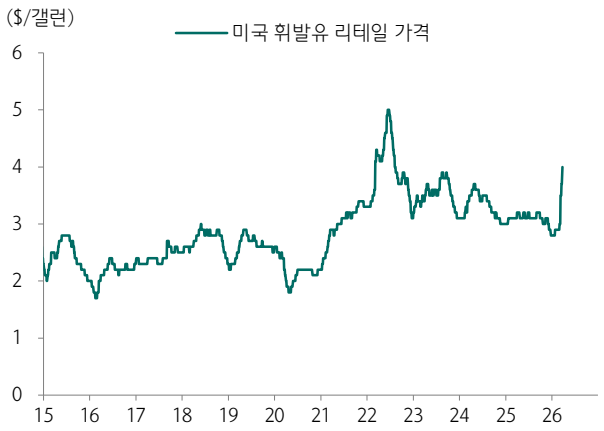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책 이슈별 지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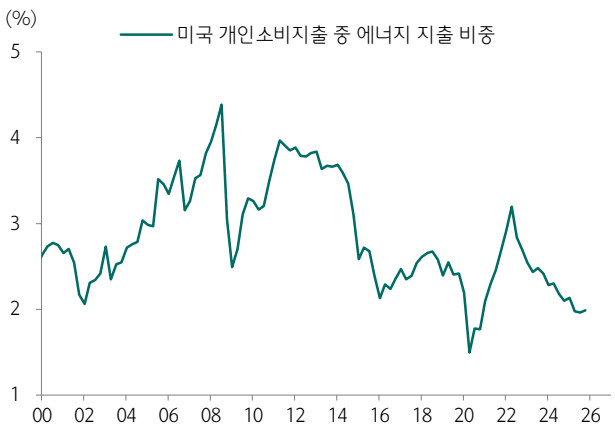
주: 흰색 점은 취임 직후 지지율
자료: The Economist,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휘발유 리테일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 3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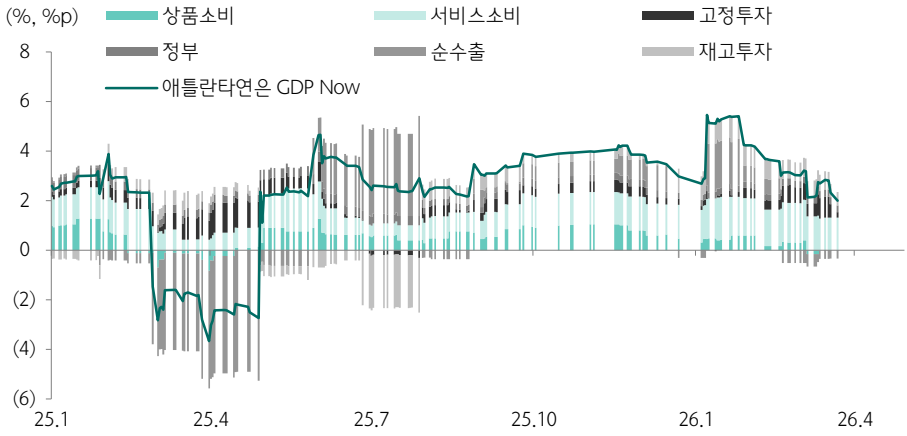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4. 미국 개인소비지출 중 에너지 지출은 약 2%로 낮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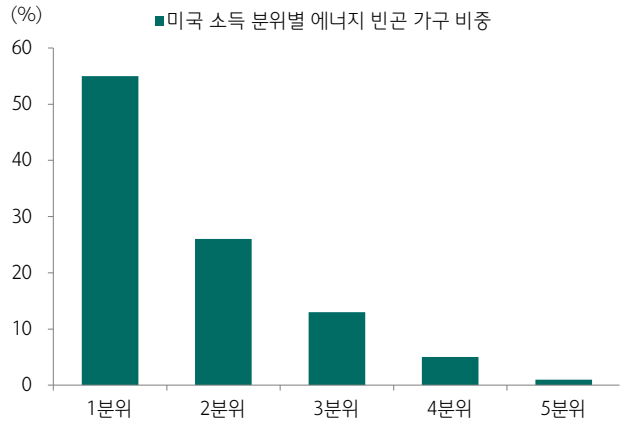
자료: FRED, 하나증권

도표 5. 순수출과 상품소비 부진이 미국 성장률 둔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2%대 성장 기대는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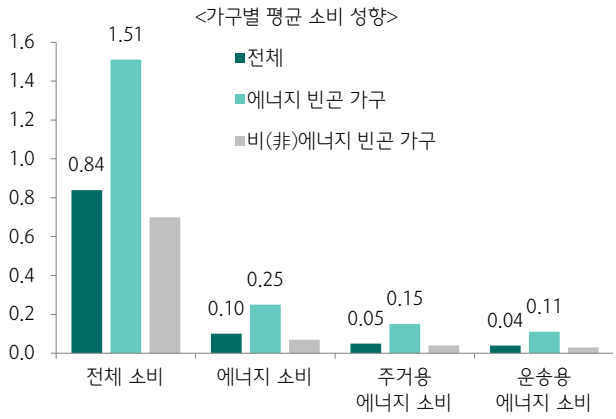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에너지 빈곤 가구들의 부담 확대되며 K자형 경제 구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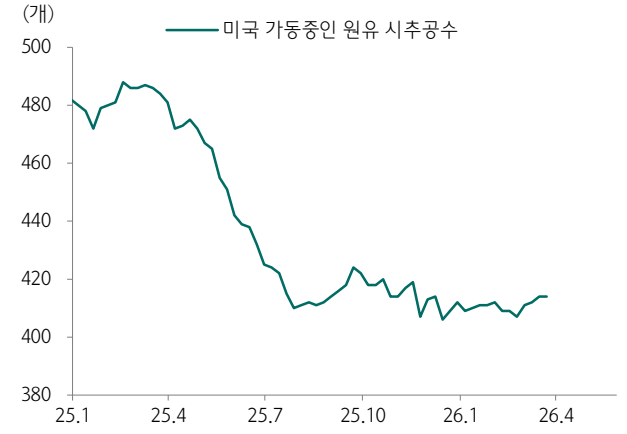
주: 에너지 빈곤 가구 =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 비율이 중간값의 2배를 초과
자료: FRB, 하나증권

도표 7. 에너지 빈곤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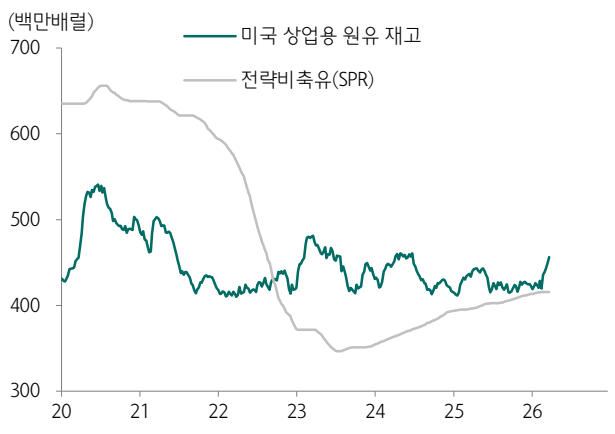
자료: FRB, 하나증권

도표 8. 3월 들어 미국 내 가동중인 원유 시추공수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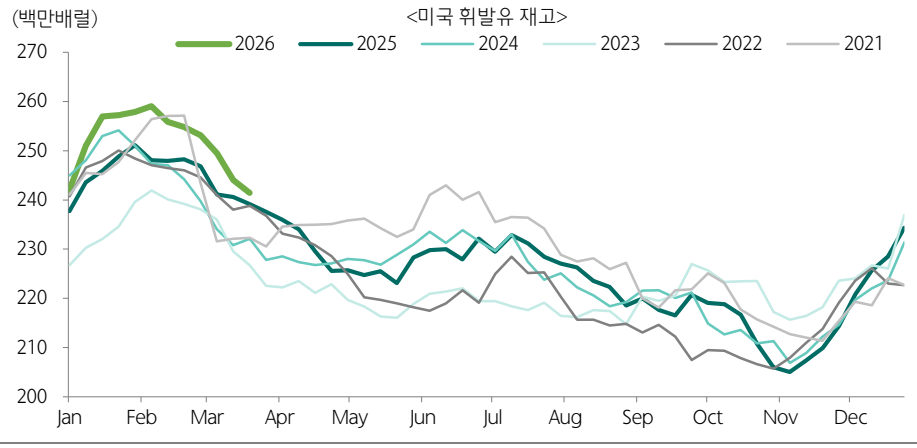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9.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충분히 많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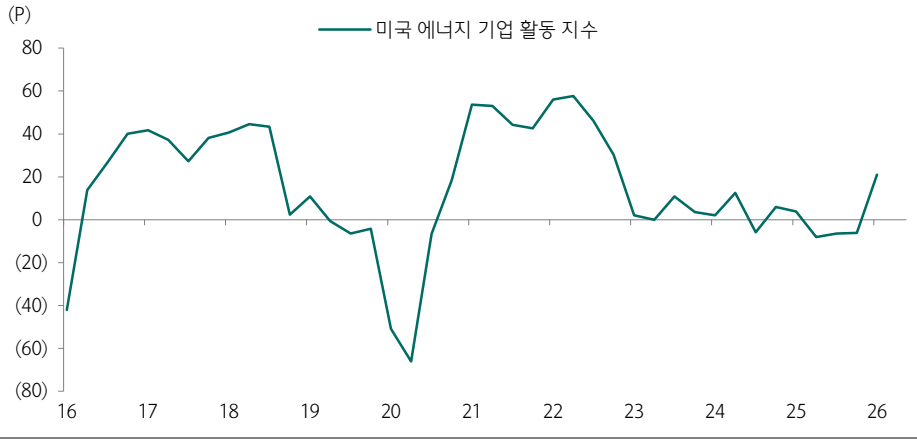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10. 예년 대비 미국의 휘발유 재고도 충분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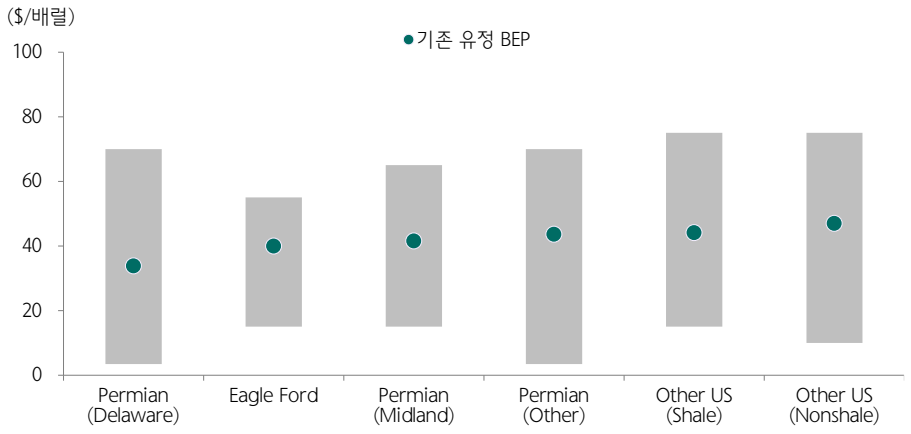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11. 이란 전쟁 이후 급반등한 미국 에너지 기업 활동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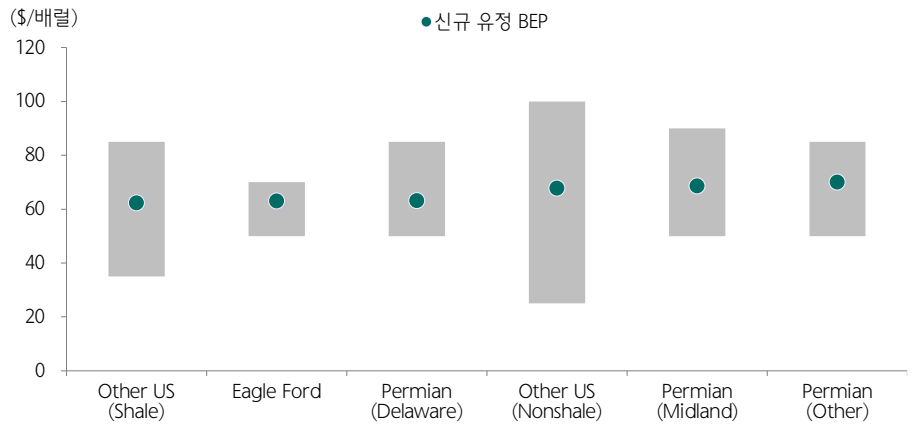
자료: Dallas Fed, 하나증권

도표 12. 미국 셰일기업들의 기존 유정 BEP는 평균 $43 수준



자료: Dallas Fed, 하나증권

도표 13. 미국 셰일기업들의 신규 유정 BEP는 평균 $66 수준



자료: Dallas Fed, 하나증권